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6.4.3

APRIL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달러 환율
1,517.40원 (+16.10원)

KOSPI
5,234.05 (-244.65, -4.47%)

KOSDAQ
1,056.34 (-59.84, -5.36%)

국고채 10년 금리
3.804 (+0.115%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기업분석

RF머트리얼즈	광에 이어 RF 호재가 기대됩니다 [김홍식]
POSCO홀딩스	1분기부터 영업실적 개선 전망 [박성봉]
동원산업	1Q26 Pre: 식품 호조 VS. 비식품 부진 [심은주]
NH투자증권	1Q26 Pre: 생각보다 더 좋다 [고연수]

산업분석

자동차	완성차 도매판매 동향(2026년 3월) [송선재]
카지노	이 가격에선 FOLD는 없습니다 [이기훈]
방산	미국의 NATO 탈퇴 위협 시즌2 [채운샘]

Weekly

통신	무선 통신장비주 매수 서둘러야 [김홍식]
유틸리티	2주만 지나면 좋아질까 [유재선]
제약/바이오	정상화 되어 돌아올 때를 준비하자 [김선아]

글로벌리서치

미국 우주 산업	스페이스X 상장과 아르테미스2 성공이 여는 우주산업 투자 확대 국면 [김재임]
강사부홀딩스	2H25 Re: 시장 기대치 부합 [심은주]

단기투자유망종목

삼성전자, 기아, KB금융, 키움증권, LG이노텍, 오리온, RFHIC, 더블유씨피

하나증권

2026년 04월 03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RF머트리얼즈 (327260)

광에 이어 RF 호재가 기대됩니다

BUY (유지)

목표주가(12M)	120,000원(상향)
현재주가(4.02)	68,9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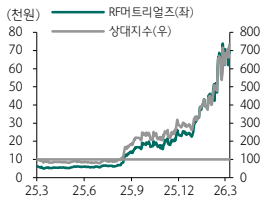
Key Data

KOSDAQ 지수 (pt)	1,056.34
52주 최고/최저(원)	73,900/4,840
시가총액(십억원)	585.3
시가총액비중(%)	0.10
발행주식수(천주)	8,495.1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357.3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6.9
외국인지분율(%)	6.19
주요주주 지분율(%)	
알에프에이치아이씨 외 9 인	50.31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90.0	125.2
영업이익(십억원)	12.9	21.2
순이익(십억원)	11.6	18.2
EPS(원)	1,243	2,019
BPS(원)	7,241	9,843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44.5	64.1	98.6	136.5
영업이익	(1.5)	7.4	16.4	27.4
세전이익	(7.5)	8.3	17.6	28.6
순이익	(4.8)	7.1	13.7	22.3
EPS	(568)	837	1,618	2,627
증감율	적지	흑전	93.31	62.36
PER	(8.41)	27.30	43.02	26.49
PBR	0.94	3.65	8.89	6.66
EV/EBITDA	19.96	18.30	30.25	18.00
ROE	(11.22)	15.05	23.01	28.73
BPS	5,102	6,260	7,831	10,458
DPS	0	0	0	0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RF머트리얼즈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는 120,000원으로 상향

RF머트리얼즈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1) AI발 서버 트래픽이 급증한 덕에 내년까지는 루멘텀향 펌프레이저 매출이 실적 하방을 지탱할 전망이고, 2) 이미 미국에서 800MHz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 주파수 경매를 추진하고 AT&T가 2,500억 달러 CAPEX 계획을 발표하며 망투자 논리가 입증되고 있으며, 3) 중국산 장비가 퇴출되고 NXP 역시 통신사업부에서 철수하여 시장환경이 유리하게 재편 중이고, 4) 고주파수 대역에선 GaN TR이 필수적인 만큼 모회사 RFHIC M/S가 확장되며 RF머트리얼즈의 RF향 패키지 매출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며, 5) 광 피어는 물론이고 RF피어 대비해서도 PBR이 낮아서 멀티플 부담감이 낮기 때문이다. 한편, 목표주가를 120,000원으로 상향한다. 모회사 RFHIC의 통신부문 매출 성장 기대감을 반영하여 RF머트리얼즈의 실적 전망치를 상향했기 때문이다.

광모듈 수요가 증가했다면 RF모듈 수요 증가도 시간문제다

최근 광통신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뜨겁다. RF머트리얼즈도 AI서버향 광모듈 덕분에 2025년 영업이익 흑자전환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그런데 이제는 광에 이어 RF향 패키지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겠다. 서버에서 기지국으로 이어지는 통신망은 한 몸이기 때문에 서버가 CPO로 고도화된다면 최전방에서는 대규모 주파수를 확보하고 기지국 설비 투자가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800MHz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 주파수 경매를 추진하는 가운데 AT&T가 사상 최대 규모인 2,500억 달러 CAPEX 집행 계획을 발표하며 망투자 논리를 입증하고 있다. 한편 공급 측면도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중국산 장비 퇴출이 전방위적으로 확대 중이고, NXP가 통신용 칩 사업부문에서 철수했다. 특히 고주파수 대역에선 GaN TR이 필수적인 것을 감안시 모회사 RFHIC M/S가 크게 확장되며 RF머트리얼즈의 RF향 패키지 매출이 증가하는 그림을 바라볼 수 있다.

피어대비 부담없는 멀티플, 광에서 RF로 수급 이어지며 주가 상승은 계속될 것

RF머트리얼즈 주가는 1년전 대비 1,100% 상승했다. 부담감을 느끼는 투자가들도 있겠으나 국내외 피어 대비해서는 여전히 저평가된 종목이다. 서버내 구리선을 광으로 교체하는 산업 대전환기에 접어들며 루멘텀은 물론이고 중국 업체들마저 PBR이 30배 이상으로 확장됐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광업체에 비해서도 PBR이 낮다. RF머트리얼즈는 루멘텀을 통해 CPO 관련 실적이 발생하는 사실상 국내 유일의 업체란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게다가 향후 5G-SA와 6G 경매가 시작되면 고주파수에 필수적인 GaN TR 품귀현상이 발생할텐데, 이 때 또다시 모회사 RFHIC와 함께 멀티플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이번에는 19~20년 반쪽짜리 5G 경매에 비할바 없는 초거대 이벤트가 연속된 점을 감안하면 멀티플 상승 재료가 끝이 없는 셈이다. 당분간은 계속 매수에 임할 것을 추천한다.

2026년 4월 3일 | 기업분석_Earnings Preview

POSCO홀딩스 (005490)

1분기부터 영업실적 개선 전망

BUY (유지)

목표주가(12M)	740,000원
현재주가(4.02)	341,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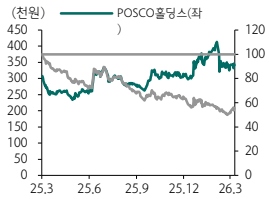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5,234.05
52주 최고/최저(원)	413,000/233,500
시가총액(십억원)	27,598.1
시가총액비중(%)	0.64
발행주식수(천주)	79,241.5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634.1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226.1
외국인지분율(%)	29.25
주요주주 지분율(%)	
국민연금공단	8.09
BlackRock Fund Advisors 외 13 인	5.63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72,257.4	75,058.8
영업이익(십억원)	3,214.8	3,877.5
순이익(십억원)	1,888.5	2,337.5
EPS(원)	23,356	29,523
BPS(원)	770,304	794,169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72,688.1	69,094.9	73,341.1	75,293.4
영업이익	2,173.6	1,827.1	3,323.3	3,701.0
세전이익	1,251.2	1,106.8	3,179.7	3,016.5
순이익	1,094.9	657.7	3,131.5	2,970.7
EPS	13,073	8,085	39,313	37,490
증감율	(34.89)	(38.15)	386.25	(4.64)
PER	19.39	37.72	8.80	9.23
PBR	0.37	0.43	0.46	0.45
EV/EBITDA	6.24	7.54	6.45	5.92
ROE	2.00	1.18	5.50	5.02
BPS	689,205	703,131	748,275	776,435
DPS	10,000	10,000	10,000	10,000

Analyst 박성봉 sbpark@hanafn.com
RA 김승규 sgkim@hanafn.com

1분기 철강 스프레드 축소 반면, 국내 자회사들의 영업실적 개선 긍정적

2026년 1분기 POSCO홀딩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7.2조원(YoY -1.4%, QoQ +2.1%)과 5,715억원(YoY +0.5% QoQ +4,405.8%)으로 영업이익은 시장컨센서스인 6,059억원을 소폭 하회할 전망이다.

1) 전반적인 철강 내수 부진 영향으로 1분기 POSCO의 철강 판매량은 801만톤(YoY -1.7%, QoQ +3.7%)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 3분기 철광석을 비롯한 원재료 스팟 가격이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됨과 동시에 4분기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POSCO의 고로 원재료 투입단가는 전분기대비 2만원/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3) 부진한 내수 영향으로 탄소강 ASP는 0.7만원/톤 상승에 그치면서 스프레드가 축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4) 해외 철강 자회사들의 경우 4분기와 유사한 영업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5) 기타 국내 자회사들은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포스코퓨처엠의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4분기에 1,9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던 포스코이앤씨는 1분기에는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분기에도 수익성 개선 지속 전망

2분기 POSCO의 철강제품 판매는 816만톤(YoY -0.2%, QoQ +1.9)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4분기부터 지속된 원재료, 특히 원료탄 가격 상승에 이어 최근 국제 유가 급등으로 철광석 가격도 상승세로 전환된 가운데 원/달러 환율도 추가 상승하면서 2분기에도 POSCO의 고로 원재료 투입 단가는 2~3만원/톤 상승이 예상된다. 이에 POSCO는 열연과 후판을 비롯하여 주요 제품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입산 규제가 강화된 제품 중심으로 본격적인 가격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스프레드는 전분기 수준이 유지될 전망이다. 대신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포스코이앤씨와 같은 국내 자회사들과 더불어 리튬 사업 회사들의 영업실적 개선이 기대되기 때문에 POSCO홀딩스는 2분기에 8,130억원(YoY +33.9%, QoQ +42.3%)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전망이다.

투자의견 'BUY' 및 목표주가 740,000원 유지

POSCO홀딩스에 대해 투자의견 BUY와 목표주가 740,000원을 유지한다. 한국의 철강 수입 규제와 더불어 하반기로 갈수록 기대되는 중국의 고정투자 회복 전망을 감안하면 2026년 철강 부문 영업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주요 자회사들의 대규모 일회성 영업비용의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올해는 영업실적 개선 가시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리튬 생산능력 확대와 리튬 가격 상승으로 관련 자회사들의 전사 영업실적 기여도 확대도 기대된다.

2026년 4월 3일 | 기업분석_ Earnings Preview

동원산업 (006040)

1Q26 Pre: 식품 호조 VS. 비식품 부진

BUY (유지)

목표주가(12M)	72,000원
현재주가(4.02)	37,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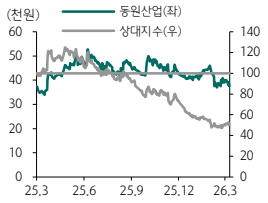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5,234.05
52주 최고/최저(원)	52,700/33,900
시가총액(십억원)	1,655.5
시가총액비중(%)	0.04
발행주식수(천주)	44,140.8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76.2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3.1
외국인지분율(%)	4.04
주요주주 지분율(%)	
김남정 외 14 인	78.90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9,970.0	10,365.7
영업이익(십억원)	563.5	591.8
순이익(십억원)	338.9	377.3
EPS(원)	7,135	7,928
BPS(원)	78,190	85,479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8,944.2	9,583.7	9,976.7	10,375.8
영업이익	501.3	516.1	538.7	588.3
세전이익	195.8	466.8	467.9	526.9
순이익	75.3	367.0	324.9	372.9
EPS	1,732	8,795	7,361	8,448
증감율	(58.91)	407.79	(16.30)	14.77
PER	21.33	4.76	5.31	4.63
PBR	0.52	0.52	0.45	0.42
EV/EBITDA	4.65	4.91	4.38	3.87
ROE	2.74	11.61	8.87	9.44
BPS	70,567	79,921	86,145	92,843
DPS	1,000	1,150	1,750	1,750

Analyst 심은주 yesej01@hanafn.com
RA 고찬결 cgko@hanafn.com

1Q26 Pre: 식품 호조 VS. 비식품 부진

1분기 연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2조 4,406억원(YoY 5.2%), 1,311억원(YoY 5.0%)으로 추정한다. 식품 계열사는 호실적이 예상되나, 비식품 계열사(동원시스템즈 등) 실적은 시장 기대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① 동원산업 별도 손익은 YoY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톤당 선망참치어는 1,800불에 거래 중이다. 이는 YoY 14% 상승한 수치이다. 견조한 어가 및 어획량(YoY 8% 추정) 기인해 손익은 전년대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② 스타키스트는 연초 판가 인상을 단행(파우치 제품 약 10%)했다. 판가 인상 이후, 미국 비우호적인 날씨가 이어지면서 판매량이 견조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전년대비 마진 개선이 가능해 보인다. ③ 동원F&B 별도 영업이익도 명절 선물세트 반영 효과 기인해 견조할 것으로 추정된다. 동원홈푸드 및 팜스도 긍정적 영업환경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비식품 계열사인 ④ 동원시스템즈는 YoY 감익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알루미늄 등 주요 원재료 상승과 주류 총수요 부진에 따른 패키징 판매 저하가 지속되고 있어 부담이다.

식품 계열사는 비교적 양호한 실적 흐름 이어질 듯

올해 연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9조 9,767억원(YoY 4.1%), 5,387억원(YoY 4.5%)으로 추정한다. 식품 계열사는 비교적 견조한 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 상승으로 어가가 톤당 1,800불까지 상승했다. 고 어가 흐름은 유지될 공산이 커 보인다. 스타키스트는 판가 인상 기인해 원가 상승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동원F&B 연결은 가공식품 원가 부담(어가)을 홈푸드 및 팜스가 상쇄할 것으로 예상한다. 비식품 계열사인 동원시스템즈는 주요 원재료 가격 급등이 손익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익 체력이 800억원 대에서 작년 550억원으로 저하되었는데, 올해는 500억원 내외가 예상된다.

밸류에이션은 부담 없으나 주가 모멘텀 부재

현 주가는 12개월 Fwd PER 5배에 거래 중이다.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상대적으로 높으나, 주가 모멘텀은 다소 부재하다.

2026년 04월 03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NH투자증권 (005940)

1Q26 Pre: 생각보다 더 좋다

BUY

목표주가(12M) 44,000원(유지)
현재주가(04월02일) 29,75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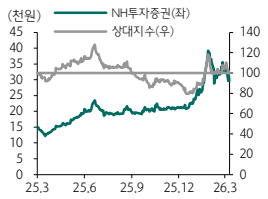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pt)	5,234.05
52주최고/최저(원)	39,200/12,200
시가총액(십억원)	10,601.2
시가총액비중(%)	0.25
발행주식수(천주)	356,344.4
60일 평균거래량(천주)	1,306.1
60일 평균거래대금(십억원)	40
외국인 지분율(%)	12.23
주요주주 지분율(%)	
농협금융지주 외 4 인	61.94
국민연금공단	8.36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20,332	20,219
영업이익(십억원)	1,661	1,635
순이익(십억원)	1,216	1,174
EPS(원)	3,223	3,135
BPS(원)	26,938	28,956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순영업수익	2,012.0	2,643.7	3,411.0	3,621.7
영업이익	901.1	1,420.6	2,009.7	2,165.6
세전이익	924.9	1,347.7	1,998.9	2,155.7
지배순이익	686.7	1,031.6	1,489.3	1,606.1
PER	7.0	7.7	7.5	6.9
PBR	0.6	0.8	1.1	1.0
ROA	1.1	1.2	1.7	1.7
ROE	8.5	10.9	14.3	14.1
DPS	950	1,300	1,750	2,000
배당성향	48.0	47.3	44.1	46.7
배당수익률	6.8	6.2	5.9	6.7

Analyst 고연수 yeonsookoh@hanafn.com

2026년 1분기 컨센서스 19% 상회 예상

1분기 지배주주순이익은 4,111억원으로 컨센서스(3,456억원)를 약 19.0% 상회하며, 1분기 연환산 연결 ROE는 17.6%(YoY +7.1%p, QoQ +5.6%p) 기록할 것으로 추정한다. 채권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운용 기조가 이어지며 트레이딩 실적이 예상대비 견조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하 별도기준)

[브로커리지] 1분기 위탁매매 수수료수익은 2,910억원(YoY +184.4%, QoQ +50.6%)으로 추정한다. 해외주식 거래대금이 전분기대비 19% 감소했으나, 국내주식 거래대금이 전분기대비 81% 급증한 영향이다. 이에 따른 국내/해외 비중은 각각 85%, 15% 수준으로 추산된다. WM 수수료수익은 32억원(YoY +24.7%, QoQ +23.0%)으로 안정적인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자] 이자손익은 2,659억원(YoY +41.7%, QoQ +9.6%)으로 추정한다. 2월 신용공여 잔고가 약 6.1조원까지 확대되며 신용공여이자수익(YoY +77.6%, QoQ +17.4%)을 중심으로 이자수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IB] IB 및 기타수수료수익은 997억원(YoY -16.5%, QoQ -10.0%)으로 추정한다. 부동산PF 부문에서 대형 딜 부재로 인해 전분기대비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트레이딩]** 운용 및 기타손익은 금리 상승 환경에서도 보수적인 운용 기조에 따라 채권운용손익이 선방하며 1,431억원(YoY +78.9%, QoQ +20.5%) 기록할 것으로 추정한다.

NH투자증권에 대해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44,000원 유지

NH투자증권에 대해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44,000원 유지한다. 3월 비우호적인 매크로 환경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딩 부문이 예상대비 견조한 실적을 시현하며 컨센서스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 중동 지정학 리스크로 인해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나, 중장기적으로 증권업으로의 머니무브는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며,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이익 성장세가 지속되는 한 KOSPI로의 자금 유입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증권업종은 실적 성장과 함께 멀티플 리레이팅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동사는 연결 기준 배당성향이 40%대 중반 수준으로(26F DPS 1,750원, 배당성향 44.1%), 높은 주주환원율이 주가 하방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매크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국면에서는 투자 매력도가 높다. 증권업종 내 관심종목으로 제시한다.

완성차 도매판매 동향(2026년 3월)

자동차 실적은 하회할 전망. Valuation 모멘텀을 기다리는 시간 | 2026.4.3

투자의견	Overweight

자동차 Analyst 송선재 sunjae.song@hanafn.com

Key Insight: 1분기 실적은 기존 예상대비 하회할 전망이지만, Valuation Multiple을 자극할 로봇 및 자율주행 모멘텀이 더 중요

판매동향

- 현대차/기아의 3월 글로벌 도매판매는 35.9만대/28.6만대로 -2%/+3% (YoY)
- 합산 글로벌 도매판매는 64.5만대(-0.0% (YoY)). 내수/해외 판매가 각각 +5%/-1% (YoY)
- 합산 도매판매는 지난달 -4%에서 -0%로 하락폭 축소

달성률

- 현대차/기아의 2026년 도매판매 목표는 1%/7% 증가한 415.8만대/335.0만대
- 3월 누적으로 계절성을 감안한 달성률은 각각 23.5%/23.3%
- 이는 과거 3년 평균 달성률 24.0%/24.2% 대비 하회한 수준. 6년 평균 달성률 24.1%/24.3% 대비로도 모두 하회한 수준
- 2026년 목표 자체가 낮은 상황에서 3월까지의 누적 판매는 현대차와 기아 모두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주가

- 이란 전쟁 등 글로벌 정세 불확실성으로 산업수요 저성장 및 경쟁심화로 2026년 1분기 현대차/기아 판매는 -3%/+1% (YoY) 기록
- 현대차/기아 합산 기준 1분기 판매목표 달성률이 23.4%로 과거 3년/6년 평균 달성률 24.1%/24.2% 대비 하회
- 1분기 실적추정의 주요 변수들을 점검해 보면,
  (물량) 1분기 판매대수는 하나증권의 기존 추정치 대비 4%/4% 하회
  (평균환율) 1분기 원/달러 평균환율이 1,468원(+1% (YoY)). 이는 하나증권의 1분기 추정치 내 환율 가정인 1,450원 대비 상회
  (기말환율) 원/달러 1분기말 환율은 1,524원으로 2025년 4분기말 환율 1,446원 대비 78원(+5%) 상승
  (가격) 내수 비중 0.1%p 상승. HEV/EV 판매비중 상승 추정 vs. 인센티브 증가 예상 등 ASP 효과는 비슷할 듯
- 즉, 기존 추정치 대비 평균환율만 상회하고, 물량/기말환율/가격은 하회하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기존 대비 하회 예상. 추후 조정 예정
- 완성차 주가를 기준 P/E 9배 수준으로 글로벌 Peers 및 Historical 대비 상회. 즉, 자동차 제조만의 Valuation은 적정 수준
- 실적 추정치가 기존 예상대비 하회할 전망인 바, 주가는 Valuation Multiple 상승의 촉매가 필요
- 4Q25~1Q26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반영. 2분기 이후 테슬라 옵티머스 3세대 공개 및 중국 유니트리 로보틱스의 상장 등에 따른 로봇 모멘텀에 변수로 작용. 하반기에는 보스턴다이내믹스의 IPO 주관사 선정 기대감이 중요한 촉매가 될 수 있을 것
- 자율주행 부문에서는 하반기 출시될 SDV Pace Car 및 L2+ G90의 기술 경쟁력 확인이 Valuation 프리미엄을 결정할 중요 이벤트. 단기적으로 4월 9일 예정된 기아 CEO Investor Day에서 관련 내용이 공유될 가능성을 주목할 것

현대차: 3월 도매판매 -2.3% (YoY). 내수/해외 -2%/-2%

도매판매

- 3월 글로벌 도매판매 35.9만대(-2.3% (YoY))
- 내수 6.2만대(-2% (YoY))/해외 29.7만대(-2% (YoY)). 해외판매 비중 82.8%(-0.1%p)
- 내수에서 승용 2.0만대(+8%), RV 2.1만대(-5%), 소상 0.9만대(-6%), 대형 0.1만대(-38%), 제네시스 1.0만대(-1%, 비중 16.9%)
- 내수 승용: 아반떼/쏘나타/아이오닉6/그랜저 -20%/+26%/+55%/+22% (YoY)
- 내수 RV: 캐스퍼/코나 -11%/+43% (YoY). 투싼/싼타페/팰리세이드/아이오닉9 -14%/-35%/-54%/+58% (YoY)
- 내수 제네시스: G80/GV70/GV80 +4%/-4%/-13% (YoY)
- 내수 친환경차: 2.4만대(+23%). 친환경차 비중 38.4%(+7.8%p). EV/HEV 각각 0.9만대/1.5만대(+48%/+12%)
- 내수 EV: 캐스퍼 1,201대(+1%), 아이오닉9 1,239대(+58%), 아이오닉6 862대(+55%), 아이오닉5 2,410대(+113%), 넥쏘 1,025대(+246%)

기아: 3월 도매판매 +2.7% (YoY). 내수/해외 +13%/+0%

도매판매

- 3월 글로벌 도매판매 28.6만대(+2.7% (YoY))
- 내수 5.6만대(+13% (YoY))/해외 22.9만대(+0% (YoY)). 해외판매 비중 80.2%(-1.8%p)
- 내수에서 승용 1.3만대(+18%), RV 3.7만대(+5%), 상용 0.6만대(+72%)
- 내수 승용: 모닝/레이 +147%/-8%. K5/K8 +7%/-17%
- 내수 RV: 니로 -52%. 셀토스/스포티지/쏘렌토/카니발 -7%/-16%/+7%/-30%. 타스만 +317%
- 내수 친환경차: 3.5만대(+52%). 친환경차 비중 62.8%(+16.2%p). EV/HEV 각각 1.6만대/1.9만대(+149%/+15%)
- 내수 EV: EV3 4,468대(+47%), EV4 1,809대, EV5 3,513대, EV6 1,296대(+11%), EV9 351대(+74%), PV5 3,093대

2026년 4월 3일 | 산업분석_Earnings Preview

카지노

이 가격에선 FOLD는 없습니다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강원랜드(035250)
BUY I TP 23,000원 I CP 16,780원

롯데관광개발(032350)
BUY I TP 28,000원(하향) I CP 16,320원

파라다이스(034230)
BUY I TP 25,000원(하향) I CP 16,490원

GKL(114090)
BUY I TP 16,000원(하향) I CP 11,580원

*CP 2026년 4월 2일

2분기에 집중된 실적 모멘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7년 예상 P/E 10~11배

2월 춘절 효과에도 불구하고 마카오 및 한국 외인 카지노의 실적이 크게 부진하며 주가도 부진했는데 마카오는 바로 3월부터 빠르게 회복했다. 한국 카지노의 1분기 실적은 여러 악재가 겹치며 불운 했지만 롯데관광개발은 4월 제주도의 성수기 진입 및 롤링 마케팅 본격 확대, 파라다이스도 3월 오픈한 리젠시 호텔의 램프업이 시작되면서 2분기 이후 사상 최대 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가는 마카오 하락과 어려운 주식 시장 환경으로 2027년 예상 평균 P/E 기준 10~11배 내외까지 하락했다. 마카오의 디레이팅을 반영하여 외인 카지노 3사의 목표주가를 10% 내외 하향하지만, 이 가격대에서는 매도보다 매수가 훨씬 더 손익비가 높은 구간이다. 2분기 실적 모멘텀을 앞두고 지속적인 비중 확대를 추천한다. 롯데관광개발을 최선호주로 유지하나, 파라다이스의 신규 호텔 오픈에 따른 가파른 성장 모멘텀 확인 시 신규 최선호주로 제시할 계획이다.

GKL 상회, 강원랜드 부합, 롯데관광개발/파라다이스 하회

강원랜드,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GKL의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각각 675억원(-9% YoY)/342억원(+163%)/431억원(-25% YoY)/167억원(-17%)으로 GKL 상회, 강원랜드 부합, 그리고 롯데관광개발과 파라다이스는 하회할 것이다. 롯데관광개발과 파라다이스는 각각 2월/3월 매출이 상당히 부진하면서 컨센서스를 하회했으나, 4월부터 각각 롤링 마케팅 확대 및 하얏트 리젠시 호텔 오픈 효과가 시작되기에 2분기부터 재차 높은 성장 모멘텀을 전망하고 있다. 강원랜드는 2028년까지 객실 리노베이션과 제2카지노 증설에 따른 대규모 Capex가 시작된다.

1분기 마카오 카지노 주가는 -20%

1분기 마카오 카지노 주가는 -20%로 상당히 부진하면서 마카오 평균 P/E는 12배 내외까지 하락했다. 1월 마카오 GGR은 +24%로 상당히 좋은 시작을 보였으나, 2월 춘절 연휴가 포함되었음에도 5% 성장에 그치면서 수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었고, 동기간 롯데관광개발 및 파라다이스의 중국인 VIP도 상당히 부진하면서 전반적인 주가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3월 GGR은 28억달러(약 4.2조원, +15%)으로 컨센서스(+11%)를 크게 상회하면서 분기로는 14% 성장을 기록했다. 2월 부진이 일시적 이슈임을 확인했고, 주가 역시 상당히 반영된 만큼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Analyst 이기훈 sacredkh@hanafn.com
RA 김현수 hyunsookim@hanafn.com

2026년 4월 3일 | 산업분석_Update

방위산업

Overweight

미국의 NATO 탈퇴 위협 시즌2

NATO 회의론 변화: 경제 논리에서 군사 영역으로 전환

최근 미국의 NATO 회의론은 기존 방위비 부담 분담 문제에서 군사적 문제로 성격이 바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 3월 27일 "NATO가 미국을 위해 있지 않는데 왜 미국이 NATO를 위해 있어야 하냐"는 발언에 이어 4월 1일에는 "미국의 NATO 탈퇴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3월 31일 미국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NATO 집단방위 조항에 대한 재확인을 피하며 관련 판단은 미국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과거 1기 트럼프 행정부의 NATO 비판은 주로 유럽이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는 경제적 압박에 가까웠다. 이번에는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에서 유럽 동맹국들이 미국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NATO 비판의 명분으로 부상했다는 점이 다르다. 즉 NATO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단순 방위비 부담 등 비용 논쟁을 넘어 동맹의 군사적 유용성을 자체를 재평가하는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과거보다 제도/명분 측면에서 더 어려워진 미국의 NATO 탈퇴

NATO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발언 강도는 이전보다 강경해졌지만 실제 탈퇴 가능성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2023년 12월 미국은 상원의 2/3 동의 또는 의회의 별도 입법 없이 대통령이 NATO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지 못하도록 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NATO 탈퇴는 과거보다 제도적으로 더 어려워진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2025년에는 NATO의 모든 동맹국이 처음으로 GDP 대비 2% 국방지출 목표를 충족했다. 이는 과거와 달리 유럽 주요국들이 실제로 방위비 부담을 늘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 압박 논리를 감안하면 미국의 NATO 탈퇴 명분은 오히려 약해졌다. 종합하면 미국의 NATO 탈퇴 위협은 과거보다 강해졌지만 제도/명분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탈퇴 실행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는 판단이다. 물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서방진영 방위비 증가로 이어지는 논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의 NATO 회의론 강화는 결국 서방 국가들의 추가적인 국방지출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일(4/1) 그간 하락세를 보이던 유럽 방산주 주가 반등의 배경 중 하나로 해석된다(BAE Systems +4.3%, Rheinmetall +8.6%, Thales +5.7%, Leonardo +8.5%, Saab +4.6%, Dassault Aviation +5.2%). 미국의 NATO 불만은 NATO 창설 초기부터 반복되어온 문제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문제가 동맹 내부의 방위비 분담 조정 차원에서 관리되어 왔다. 다만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의 집단방위 의지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유럽과 동맹국들의 방위 자립 필요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NATO 탈퇴 가능성이 공개적으로 거론되는 만큼 향후 유럽의 국방지출 확대와 방위 자립 가속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Analyst 채운샘 unsam1@hanafn.com

무선 통신장비주 매수 서둘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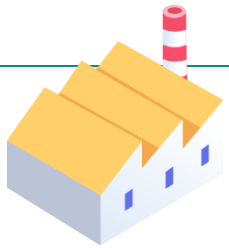
통신서비스 Weekly | 2026.4.3

Analyst 김홍식_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주간 동향 및 코멘트

다음주 투자 전략 및 이슈 점검

- 데이터센터 투자 이슈로 미국 광통신업체 주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광통신장비 업체에 대한 문의가 많다. 최근엔 데이터센터뿐만 아니라 기지국 프론트홀, 광전송장비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더욱 그렇다. 그런데 주가가 이미 많은 오른 시점이라고 보면 데이터센터에 치중된 광장비업체보다는 기지국 프론트홀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를 고르는 편이 유리해 보인다. 데이터센터 관련된 호황은 이미 시장에서 입증되어 주가에 상당부분 반영된 상태이지만 무선 프론트홀 관련 광통신업체는 이제 주가에 기대감이 반영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오이솔루션을 들 수 있겠다. 오이솔루션의 경우 데이터센터 관련 매출액은 10% 미만에 불과한 반면 무선 기지국 프론트홀 매출 비중은 60% 수준에 달한다. 성수기에 진입한다면 프론트홀 비중은 80%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광통신관련주의 경우 장기적으로 볼 때 무선 비중이 높은 종목의 주가 상승 업사이드가 크다는 판단이다.
- 최근 HFR 주가가 큰 폭의 상승세를 시도 중이다.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국내 통신장비주 상승을 주도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삼성 벤더인 RFHIC/KMW 대비 주가가 오르지 못했다는 인식과 더불어 얼마전 향후 5년간 370조원 네트워크 투자를 언급한 AT&T에 2021~2023년 장비를 공급한 전례가 있다는 점이 주가 상승의 기폭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RFHIC와 KMW도 AT&T에 장비를 공급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삼성전자가 AT&T의 벤더로 선정되거나 RFHIC와 KMW가 에릭슨 벤더로 선정되는 경우다. 사실상 전세계 무선 1등인 에릭슨은 미국 통신 3사에 모두 공급업체로 선정될 것이 유력하다는 전제 하에 그렇다. 미국의 중국 장비 배제 정책 탓에 RF머트리얼즈 등 국내 광통신업체들이 지난해 미국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광통신 부문에서 위상이 대단한 중국 장비 업체를 누른 놀라운 성과다. 그렇다고 보면 이번엔 무선 부문에서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삼성전자가 경영진 주도 하에 그동안 힘을 기울였던 5G SA 및 6G 부문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고 아웃소싱 업체들의 경쟁 상황을 감안할 때 에릭슨 뿐만 아니라 노키아도 적기에 품질이 보장된 마땅한 공급 업체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최근 후발주자들의 주가가 적지 않게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선 RFHIC와 KMW 같은 국내 대표 통신장비 업체를 다시 공략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다. 유선 광통신장비 업체와는 달리 국내 무선 통신장비 업체들의 경우엔 세계적인 경력을 갖춘 부품/장비 업체들이 즐비하다. 필터의 KMW, GAN TR의 RFHIC, 광중계기의 쏠리드가 대표적이다. 이들 업체의 경우엔 미국의 중국 장비 배제 없이도 월등한 품질/가격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있다. 다시 선발주자를 공략할 시점이다.
- 스페이스X가 올해 6월로 예정된 AWS 3 밴드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이미 총 23조원을 들여 45MHz를 확보한 상황에서 추가 입찰에 나선다는 입장이어서 주목을 끈다. 이러한 스페이스X의 행보엔 근원적으로 피지컬 AI 경쟁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AI-통신-로봇의 수직 계열화도 중요하지만 위성만 가지곤 한계가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광-위성간 네트워크 연동이 가능해졌지만 지상망을 확보하지 않고선 피지컬 AI 구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향후 미국에서 스페이스X 주도의 통신사 M&A가 전개될 수 있다는 구상이 언급되기도 했다. 에코스타 또는 T-Mobile을 두고 한 말이다. 그런데 곧 스페이스X가 신규 주파수 취득 이후 통신장비 구축에 나선다면 국내 통신장비업종의 또 하나의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디시네트워크와는 체급이 다른 글로벌 공룡이 통신시장에 뛰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2019년과 모든 부분이 흡사하게 전개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무선통신장비주 비중 확대에 나설 것을 권한다.
- 다음주 통신서비스 업종 종목별 투자 매력도는 SKT>LGU+>KT 순으로 제시한다. 통신 3사 중에선 SKT를 Top Pick으로 제시한다. 통신장비 업종에선 무선장비 업체인 RFHIC/KMW/쏠리드/이노와이어리스/오이솔루션을 최선호 종목으로 제시한다.



2주만 지나면 좋아질까

유틸리티 Weekly | 2026.04.03

Analyst 유재선 jaeseon.yoo@hanafn.com

RA 성무규 mukyu.sung@hanafn.com

주간 리뷰 및 관심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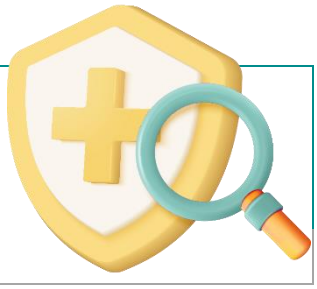
주간 리뷰

- 주간 커버리지 합산 수익률은 시장을 0.7% 하회했다. 1일 종가 기준 WTI는 101.9달러/배럴(WoW +11.4%), 미국 천연가스는 2.8달러/mmbtu(-5.7%), 아시아 LNG 현물은 19.8달러/mmbtu(-0.8%), 호주산 유연탄은 137.2달러/톤(+3.1%), 원/달러 환율은 1,513.0원(+0.5%)을 기록했다. 에너지 원자재 가격은 여전히 강세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 전까지는 높은 변동성이 불가피하다.
- 미국 대통령의 연설에 따르면 휴전을 기대하던 기존 시장의 시각과 다르게 향후 2주간 전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충돌이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명목상 이뤄지는 휴전 또는 종전보다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화 여부가 중요하다. 항행 안정성은 물리적인 위협만 벗어난다고 담보되지 않는다. 선박 보험료 인상, 담보 거부, 인수 중단 등 금융 관점의 리스크가 해소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저장시설 포화로 에너지 생산설비 가동 중단이 길어지고 공급능력 회복 시점도 늦어진다. 다운스트림에서도 정유화학 제품뿐만 아니라 부산물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산업 전반에 경계 심리가 확대될 여지가 존재한다.
- 4월 2일부로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강화되었다.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 구분에서 원유는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는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되었다. 천연가스는 현물 구매로 수급에 대응이 가능하지만 가격이 높아 원재료 구입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JKM은 3월 이후 20달러/mmbtu 수준으로 유가 레벨보다 높은 가격대를 유지 중이다. 유럽의 천연가스 재고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름철 수요 증가에 대응한 재고 확보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 4월 LNG 연료비단가는 120.41원/kWh으로 전월대비 4.8% 상승했다. 시차를 감안할 때 유가보다는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직 아시아 LNG 현물 가격 효과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5월부터 숫자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 4월 사우디 CP가 급등했고 국내 LPG 공급가격도 소폭 인상되었다. 국내 LPG 소매시장은 역마진 구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산업체 및 석화향 공급은 원활할 수 있다. 납사와 달리 프로판은 국내 도입 물량 대부분 미국에서 조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석화 제품 마진이 개선되면서 PDH 설비 가동률과 수익성이 제고되는 모습이며 LNG 열조용 LPG 공급도 원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 2016년 4월부터 적용되고 있었던 ESS 기본요금 할인 특례가 2026년 3월부로 종료되었다. 기존 기본요금 할인 3배가 적용되었을 당시 피크저감용 ESS 수익성이 크게 증가하여 국내 설치량이 GW 수준으로 증가했지만 이제 해당 설비들은 차익거래로 BEP 수준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기본요금 할인 특례 일몰에 더해 산업용 요금의 최대부하-경부하 격차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금 정책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비수기(3~5월, 9~10월) 주말과 공휴일 11~14시 50% 요금할인 정도다.
- 2026년 상반기 해상풍력 고정가격경쟁입찰이 시작된다. 이슈가 되었던 군 작전성 협의는 입찰 참여 희망 10개 사업 대상으로 사전에 협의를 진행했고 사전 협의가 없었던 사업이 낙찰될 경우 협의를 우선 진행할 예정이다. 공고된 물량은 1.8GW 규모로 고정식 1,400MW, 부유식 400MW로 구성된다. 입찰 상한가격은 고정식 171.2원/kWh, 부유식은 175.1원/kWh로 전년대비 3.0%, 0.8%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SMP 기준가격은 85원/kWh 수준이기 때문에 REC 가중치를 감안하면 실제 정산단가는 250원/kWh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금리 상승 등 원가 환경 악화 국면에서 상한가격 하락은 사업자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 온실가스 배출권(KAU25) 가격은 2일 종가 기준 16,100원으로 전주대비 2.5% 상승, YTD 54.8% 상승했다.

종목 코멘트

- SGC에너지(Top Pick): AI 데이터센터 법인 350억원 투자. 40MW 착공 시 후속 300MW까지 실적과 멀티플 기대치 제고 가능
- SK가스(Top Pick): 중동 LPG 가격 급등. 국내 B2C향 판가는 부담이나 산업체/석화향 공급 및 발전은 수익성 양호할 것
- 한국전력: 중동 전쟁 1달 경과. 지속된 기간만큼 후행적으로 실적에 부정적으로 작용. 4분기 영업적자 가능성 대비

하나 Biweekly 제약/바이오(4월 초)



제약바이오 Biweekly | 2026년 4월 3일

Analyst 김선아 seona.kim@hanafn.com
RA 유창근 changkeunyoo@hanafn.com

정상화 되어 돌아올 때를 준비하자

1) 2026년 4월 제약/바이오 산업 Preview

- **전쟁 중 저렴하게 미리 매수를 해둔다면** 미국-이란 전쟁으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5%에 육박하는 중이라 미국 제약/바이오텍(도표 5,6)과 국내 대부분의 섹터가 손쓸 도리 없이 무너지는 중이니 제약/바이오도 무사하기 어렵다. 이럴 때일수록 전쟁이 끝난 후의 이벤트에 집중하여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최근 호재 이벤트가 적은 이유로 4월 AACR (미국종양학회)을 앞두고 학회에 참석하는 바이오텍들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유난히 높았는데, 학회 당일인 4월17일-22일간 구두발표 내용을 공개하는 기업은 빠른 주가 회복 및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HLB이노베이션, 알지노믹스). AACR 영향은 받지 않았으면서, 5월 ASCO나 개별 이벤트를 기대할 수 있는 기업에 관심을 가져 보는 것도 좋다. 파트너십 기업이 주목할 만한 임상 데이터를 다수 발표할 예정인 리가켐바이오, 개별 공시나 EASL(유럽간학회)에서 MASH 2상 데이터를 공개할 디앤디파마텍, 한미약품(MSD), 3/27일 Denali Therapeutics가 BBB셔틀을 적용한 헌터증후군 치료제 Avlayah의 FDA 가속승인 획득으로 다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에이비엘바이오, 4월 J-code 발효에 따른 키트루다Qlex 처방수 급증 확인(5월 중순) 및 PGR 최종 심결로 외국인이 주목할 가능성이 높은 알테오젠 등을 예로 들어볼 수 있다. 우리는 하반기 금리 상승을 예상했으나, 예상 시기 보다 빨라졌으므로 매출 상승과 안정적인 이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제약사 쪽으로 미리 자산 배분을 해두는 것도 좋다. 컨센서스 기준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에피스홀딩스, 유한양행, SK바이오팜, 동국제약, 대원제약, 바이넥스 등이 있고, 추가로 셀트리온, 녹십자, 한미약품, 에스티팜 등도 주목할 만 하다.
- **코스닥 거대 종목의 주가 안정화된다면** 최근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의 주가 변동폭이 커진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삼천당제약은 최근 28.9조원(3/30)까지 갔다가 4영업일만에 14.3조원까지 시총이 하락하였기 때문에 패시브 수급 감소 및 펀드 환매에 따른 타 종목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할 수 밖에 없었다. 현재 삼천당제약은 4/2일 종가 기준 코스닥 시총 14.3조원으로 4위인데, 3위가 알테오젠 18.8조원, 5위가 레인보우로보틱스 10.5조원이기 때문에 삼천당제약은 여전히 코스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4/2일 금감원에서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며 주가 변동성은 한동안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 변동성이 타 바이오텍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위험을 고려하면서, 개별 종목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한 변동성은 전쟁 보다는 빠르게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고, 별 다른 이슈 없이 이 기간 동안 크게 주가가 하락한 종목이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도 높다. (위에서 언급한 종목들 중 코스닥 바이오텍 종목 참고)

2) 2026년 4월 추천 종목

- **4월 코스피 Top pick: 한미약품** 지금 많은 제약사가 저렴해 보이지만, 한미약품은 실적 개선과 기술이전 기대감을 모두 갖고 있는 만큼 가장 빠르게 주가가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에 기술이전이 나온다면 이미 인간 데이터를 보유한 삼중작용제 HM15275(2상 중)나 선천성고인슐린혈증 치료제 에페거글루카곤(2상 중)일 것으로 예상한다.
- **4월 코스닥 Top pick: 리가켐바이오, 에이비엘바이오** 1) 리가켐바이오는 5월 ASCO에서 Cstone, IKUDA 등이 주요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면서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블록버스터 ADC 치료제인 Enhertu가 안전성 및 유효성에서 완전하지 않다는 데이터가 확인될 수록, Enhertu와 다른 링커-페이로드를 적용한 파이프라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므로 중장기적으로도 관심가질 가치가 높다는 판단이다. 2) 에이비엘바이오는 Avlayah의 FDA 승인도 있지만, 유전자치료제 시장의 성장과 함께 전달체 기술인 BBB셔틀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서, AOC(Antibody Oligonucleotide Conjugation)로써 주목 받을 가능성이 높다. 4월에 파트너십의 R&D 단계 상승이나, 작더라도 기술이전 이벤트가 따른다면 5월 MSCI 신규 편입도 기대할 만 하다.

Global Issue

2026년 4월 2일 | 해외 산업

미국 우주 산업

스페이스X 상장과 아르테미스2 성공이 여는 우주산업 투자 확대 국면

스페이스X 상장 절차 본격 돌입, 우주산업 전반에 걸쳐 중요한 이정표

SpaceX가 SEC에 기업공개를 위한 비공개 신청서를 제출하며 상장 절차에 돌입했다. 주당 가격과 매각 주식 수 등 세부사항은 향후 추가 서류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Bloomberg에 따르면 SpaceX는 이르면 올해 6월 IPO를 통해 최대 750억 달러를 조달하고, 기업가치 평가액은 1.75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주력 사업인 발사체 서비스와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사업의 매출액은 2025년 150억 달러로 추정되고, 스타링크 가입자 급증을 바탕으로 2026년 매출액은 240억 달러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xAI 합병 기준 2026년 매출액 전망치 290~300억을 추정할 경우 IPO 목표 기업가치 1.75조 달러는 PSR 약 58배 수준이다. 스페이스X 기업 가치 상당 부분은 미래 사업에 대한 기대감에 기반하고 있다. 일론머스크는 우주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 테마를 주도하기 위해 최근 우주 데이터센터용 자체칩 생산을 위한 테라팹 프로젝트와 우주 컴퓨팅 인프라 구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기술적, 경제적 장벽이 높아 실현되기까지 머스크 구상보다는 훨씬 오래 걸릴 수 있으나 스페이스X에 대한 투자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로 충분히 작용하고 있다. '역사상 가장 기대 받는' 스페이스X IPO는 우주 산업이 주류 자본시장의 본격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분기점으로 우주 산업 전반에 걸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50년만의 유인 달 궤도 비행 발사 성공, 달 프로젝트를 위한 민간 기업 지원 주목

50년만에 처음으로 인류가 지구 궤도 너머로 향하는 유인 미션 아르테미스2가 4월 1일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 4명의 우주비행사가 탑승한 우주선이 SLS 로켓에 실려 발사 되고 8분 후 저궤도 이동궤도에 진입했다. 이번 미션은 2028년 예정된 아르테미스 4(달에 인간 착륙)를 위한 선행 단계로서, 유인 우주선의 달 궤도권 작동을 검증하기 위한 미션이며 달 주위를 돌고 4월 10일 귀환하는 일정이다. 아르테미스 2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2027년 아르테미스 3(지구 궤도에서 스페이스X와 블루오리진이 개발 중인 달 착륙선과 랑데부 및 도킹 시험), 2028년 달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다. NASA는 지난 3월 24일 향후 10년에 걸쳐 달 기지 건설 계획도 공표했다.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절대 우위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최우선 분야 중 하나가 우주이며, 특히 유인 달 착륙과 기지 건설에서 앞서나가기 위한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와 민간 우주 기업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주 Pureplay 종목 투자 관심 본격화

2026년은 스페이스X 상장, NASA와 미국 정부의 다양한 우주 프로젝트 시행이 예정되어 있기에 미국 우주 산업의 주요 Pure-play 종목들이 글로벌 투자 대상으로서 본격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란 전쟁 등 매크로 이슈로 변동성이 높은 점은 고려할 사항이나 향후 수년에 걸쳐 우주 산업이 막강한 투자 테마라는 점에서 충분히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alyst 김재임 jamie@hanafn.com
RA 송종원 1223sjw@hanafn.com

2026년 4월 2일 | Global Equity

강사부홀딩스 (322.HK)

2H25 Re: 시장 기대치 부합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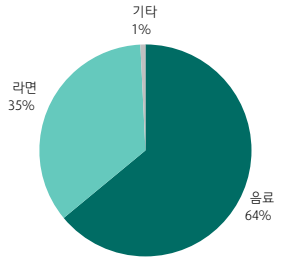
TP(컨센서스)	14.33 HKD
CP(04.01)	13.16 HKD

Key Data

국가	CHINA
상장거래소	Hong Kong
산업 분류	필수소비재
주요 영업	식품
홈페이지	www.masterkong.com.cn
시가총액(HKD)	74.3
시가총액(조원)	14.3
52주최고/최저()	13,834/10.16
주요주주 지분율(%)	
SANYO FOODS CO LTD	33.41
TING HSIN CAYMAN ISLANDS HOLDING	33.41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1.7)	(1.5)	6.0
상대	(5.7)	(12.6)	(38.1)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CNY)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80,651	79,068	82,043	83,815
영업이익	5,913	6,516	7,265	7,642
순이익	3,734	4,501	4,516	4,917
EPS(CNY)	0.7	0.8	0.8	0.9
EPS(YOY, %)	19.9	0.0	6.4	7.8
ROE(%)	26.6	30.8	30.3	31.1
PER(배)	14.3	13.3	12.8	13.3
PBR(배)	3.8	4.0	3.8	4.0
배당률(%)	3.5	3.8	7.8	7.4

자료: 블룸버그, 하나증권

Analyst 심은주 yesej01@hanafn.com
RA 고찬결 cgko@hanafn.com

2H25 Re: 시장 기대치 부합

2H25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389.8억위안(YoY -1.2%), 32.1억위안(YoY 9.3%)을 기록했다.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다. 탑라인은 다소 부진했지만, 수익성 개선 흐름은 지속됐다. 매출총이익률은 PET와 설탕 등 원자재 가격 안정화 및 제품 믹스 개선 기인해 35.2%(YoY 1.6%p, QoQ 0.7%p up)를 기록했다.

① 음료 부문 매출액은 YoY -2.7% 감소했다. RTD 차 매출은 경쟁 심화로 YoY -3.6% 감소했다. 생수 및 주스 매출도 각각 YoY -6.1%, -17.4% 감소했다. 주스는 소비자의 건강 중시 트렌드 영향이 지속되면서 매출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다. ② 라면 부문 매출액은 YoY 3.4% 증가했다. 하반기 들어 점유율이 반등한 것으로 추산된다. 카테고리별로는 용기면 및 고급면 매출이 각각 YoY 1.1%, 6.4% 증가했다. 고급면은 신제품 'Special of the Special' 판매 호조가 주효했다. 일반면은 YoY -6.2% 감소했다.

매출 및 영업이익 각각 YoY 4%, 8% 내외 증가 추정

블룸버그컨센서스에 의하면 매출 및 영업이익은 각각 YoY 4%, 8% 내외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고성장 채널인 간식점 및 창고형 할인점 커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측은 실제로 해당 채널의 맞춤화 제품 출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PET 관련 부자재는 상반기까지 충분한 재고가 확보된 것으로 추정된다. 상반기 내 비용 부담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조정시마다 매수 유효

현 주가는 12개월 Fwd PER 13배로 역사적 밴드 하단에서 거래 중이다. 밸류에이션 부담은 제한적이나, 라면 점유율 및 하반기 원가 동향이 주가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사료된다.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3/30	179,700	178,400	-0.72%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기아 (000270.KS)	3/30	155,800	150,600	-3.34%	• 셀토스 풀체인지 모델 출시 및 판매 본격화로 신차 효과 통한 물량 확대 지속 기대 • 이익 개선 및 그룹미래 모빌리티 사업구체화 통한 밸류업 기대
KB금융 (105560.KS)	3/30	152,200	146,500	-3.75%	• NIM 상승과 판관비 감소, 충당금 추가 적립 및 과징금 불확실성 해소 긍정적 요인 • 펀더멘털과 주주환원율 측면에서 리딩뱅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키움증권 (039490.KS)	3/30	435,000	404,000	-7.13%	• KOSDAQ 중심으로 개인 매수세가 본격화될 경우, M/S 반등 가능성 높아 • 실적 변동성과 무관하게 배당 확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 밝혀
LG이노텍 (011070.KS)	3/30	320,500	328,500	2.50%	• 고환율 + 롱테일효과 + 기판 수요 호조로 1Q26 호실적 기대감 존재 • 전장 및 서버용 FCBGA 가동률 상승에 따른 가파른 실적 개선 전망
오리온 (271560.KS)	3/30	134,500	130,000	-3.35%	• 하반기 '카카오' 등 원재료 및 부자재 부담 완화가 영업마진 개선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 주당배당금의 유의미한 증액 등 주주정책 강화를 통한 신뢰 회복 기대
RFHIC (218410.KQ)	3/30	82,400	86,400	4.85%	• 미국 및 국내에서 수개월 내 신규 주파수 할당 공고 및 경매 이루어질 전망 • NXP의 통신 부문 철수와 미국/EU의 중국 장비 규제 강화로 MS 확대 예상
더블유씨피 (393890.KQ)	3/30	13,490	14,560	7.93%	• ESS 중심 출하 회복과 분리막 가격 인상 사이클 진입으로 2026년 하반기 흑자전환 기대 • SK온향 ESS용 LFP 분리막 공급 추진 등으로 고객사 다변화와 중장기 성장 여력 확대 중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1.05%	+2.21%p	+54.04%	+28.43%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4/1	167,200	178,400	6.70%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LG에너지솔루션 (373220.KS)	4/1	394,500	404,500	2.53%	• ESS 매출, 미국 LFP 라인 가동 확대를 바탕으로 급성장하며 2026년 실적 개선 전망 • 하반기 미국 공장 가동 재개와 QoQ 매출 반등 가시성 확보 시 재평가 가능
두산에너빌리티 (034020.KS)	4/1	91,800	93,600	1.96%	• 글로벌 원전 투자 확대와 체코·미국 등 대형 원전 프로젝트 수주 기대 • 2026년 에너빌리티 부문 가이던스 매출액 7.4조원, 신규 수주 13.3조원 제시
KB금융 (105560.KS)	4/1	141,900	146,500	3.24%	• NIM 상승과 판관비 감소, 충당금 추가 적립 및 과징금 불확실성 해소 긍정적 요인 • 펀더멘털과 주주환원율 측면에서 리딩뱅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POSCO홀딩스 (005490.KS)	4/1	332,500	341,000	2.56%	• 1Q26부터 대수리 영향 해소와 자회사 실적 개선으로 안정적 수익성 회복 전망 • 수입산 철강 규제·중국 생산 규제 수혜로 철강 부문 스프레드 확대 기대
한국항공우주 (047810.KS)	4/1	164,700	184,200	11.84%	• 2026년 말레이시아 2차, 이집트 경전투기 사업 등의 대형 사업 예정 • 2026년 매출 가이던스 5.7조원은 기존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
포스코인터내셔널 (047050.KS)	4/1	71,500	79,500	11.19%	• 호주 Senex 가스전 증산과 미얀마 가스전 안정적 판매 증가로 에너지 실적 개선 기대 • 신규 팜 농장 인수 및 정제 사업 확대에 따른 식량 사업 규모 확대 기대
키움증권 (039490.KS)	4/1	410,500	404,000	-1.58%	• 증시로의 자금 유입 속도를 감안 시 2026년 국내·해외주식 거래대금 견조한 수준 유지 전망 • 실적 변동성과 무관하게 배당 확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 밝혀
LG이노텍 (011070.KS)	4/1	293,500	328,500	11.93%	• 고환율 + 롱테일효과 + 기판 수요 호조로 1Q26 호실적 기대감 존재 • 전장 및 서버용 FCBGA 가동률 상승에 따른 가파른 실적 개선 전망
오리온 (271560.KS)	4/1	128,000	130,000	1.56%	• 하반기 '카카오' 등 원재료 및 부자재 부담 완화가 영업마진 개선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 주당배당금의 유의미한 증액 등 주주정책 강화를 통한 신뢰 회복 기대
SK가스 (018670.KS)	4/1	269,000	258,000	-4.09%	• 해외 트레이딩 수익과 프로판 가격 급등에 따른 파생평가이익 증가, 단기 실적 뒷받침 전망 • 에너지 수급 불안정 우려 가운데 적절한 도피처로 부각 가능
에스티팜 (237690.KQ)	4/1	144,600	143,200	-0.97%	• 고객사로부터 선제적 상업화 물량 수주 증가로 실적 가시성 상승 • RNA 치료제 상업화 확대로 인한 올리고핵산 수요 폭증의 직접 수혜주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2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4.16%	+0.19%p	+27.57%	+1.97%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AI반도체 (395160)	2026.02.27	29,560	24,800	-16.1%	•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
WON 초대형IB &금융지주 (0154F0.KS)	2026.02.24	15,160	13,170	-13.1%	•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및 밸류업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대형 증권사와 주요 금융지주 등 핵심 금융주에 집중 투자하는 패시브 ETF • 초대형 IB의 구조적 성장성과 금융지주의 안정적인 배당 매력을 동시에 추구.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등 국내 금융 섹터를 대표하는 우량 종목들로 구성
에셋플러스 코리아 대장장이액티브 (442090.KS)	2026.02.24	25,365	23,450	-7.5%	• 전방 산업의 경쟁 심화 속에서 부품, 장비, 소재 등 후방 산업(소부장)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장장이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액티브 ETF • 반도체, 방산, 조선 등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 밸류체인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강소기업들을 선별 편입. 국내 주요 수출주들의 실적 개선과 맞물려 시장 지수 대비 추가적인 수익 창출 기대
PLUS 글로벌방산 (496770.KS)	2025.03.04	13,000	21,735	67.2%	•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기업들을 편입하는 종목.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디펜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스웨덴의 사브 등이 포트폴리오에 포함 • 트럼프 행정부의 NATO 방위비 압박으로 주요국들의 국방비가 증액되는 추세.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PHQ (미국 대형 퀄리티 주식)	2026.03.23	75.80	75.86	0.1%	• 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 • 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XLE (미국 에너지)	2026.01.02	45.65	58.97	29.2%	• 미국 S&P500 에너지 업종 ETF. 에너지 섹터의 대형주 20여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ExxonMobil과 Chevron의 비중이 40%를 상회하는 구성 • 트럼프 정부의 중남미 영향력 확장 시도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권 개입 상황이 미국 대표 원유 관련 기업들의 이익 증가 및 자산 회복 기회로 연결될 가능성. 유가 모멘텀은 제한되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의 개별 요인 주목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39.12	391.97	15.6%	•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버린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MADE (미국 제조업 기업)	2025.10.27	30.66	33.95	10.7%	• 미국 내 매출비중 조건 반영. 중대형 제조업, 제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ETF • 관세 구조와 트럼프 정책의 지속성에 초점. 상호관세는 협상 여지가 있는 반면, 품목관세는 협상 가능성이 낮아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공급망의 리쇼어링 현상 확대 전망. 정책 수혜 및 내수 익스포저 기반의 수혜 기대

주: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전일종가는 한국 시장 3시 30분 기준.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3.29	3.30	3.31	4.1	4.2	4.3	4.4
		▪ 일본 2월 실업률 (2.6%, 1월 2.7%) ▪ 중국 3월 제조업 PMI (50.4, 2월 49) ▪ 유로존 3월 전월대비/전년대비 CPI (잠정) (1.2%/2.5%, 2월 0.6%/1.9%)	▪ 한국 3월 전년동기대비 수출 (48.3%, 2월 29.0%) ▪ 중국 3월 레이팅독 제조업 PMI (50.8, 2월 52.1) ▪ 미국 3월 ADP취업자 (E 40K, 2월 63K) ▪ 미국 2월 전월대비 소매판매 (E 0.5%, 1월 -0.20%) ▪ 미국 3월 ISM 제조업 (E 52.3, 2월 52.4)	▪ 한국 3월 전월대비/전년대비 CPI (0.3%/2.2%, 2월 0.3%/2.0%) ▪ 미국 3월 4주차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12K 이전치 210K)	▪ 미국 3월 비농업부분 고용자수 변동 (65K, 2월 -92K) ▪ 미국 3월 실업률 (계절조정) (E 4.40% 2월 4.40%)	
4.5	4.6	4.7	4.8	4.9	4.10	4.11
		▪ 중국 3월 외환보유액 (E--, 이전치 $3,427B) ▪ 미국 2월 내구재 주문 (잠정) (E--)	▪ 한국 2월 BoP 경상수지/상품수지 (E--/--, $13,259m/$15,173m) ▪ 일본 2월 BoP 경상수지 (E--, 이전치 ¥941.6b) ▪ 미국 3월 FOMC 회의록	▪ 미국 4월 1주차 실업수당 청구건수 (E--)	▪ 한국 4월 금융통화위원회 (E 2.5%, 이전치 2.5%) ▪ 미국 3월 CPI (E--, 이전치 2.40%) ▪ 중국 3월 CPI (E--, 이전치 1.30%)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